주택 대출금리 치솟고, LPG 공급가 10%↑, 전문점 커피값 기습 인상

연초부터 서민 가계 압박

새해들어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인상한 연 4.82~6.12%로 고시했다. 지난달 중순에 비해서는 0.07%포인트 높아졌으며 지난해 9월 7일 이후로는 0.45%포인트 급등하면서 최저 금리가 2008년 12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번 주 적용 금리를 각각 4.86~6.06%와 5.46~6.48%로 지난주 초보다 0.07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4.36~6.16%와 5.10~6.65%로 0.07%포인트 높였다.

CD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은행들의 잇따른 CD 발행으로 정초부터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한은이 연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LPG 가격도 정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자동차용 부탄가스 가격은 올해들어 ℓ당 각각 927.90원과 924.78원으로 1주일만에 광주가 7.8%인 67.16원, 전남이 6.6%인 57.76원이나 올랐다.

이는 LPG 수입업체인 SK가스와 E1이 올해들어 1월의 LPG 공급가격을 kg당 92~95.75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프로판 가스 가격도 9% 넘게 올라 SK가스가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kg당 1,097.48원으로 12월보다 95.75원(9.56%) 올랐다. E1이 공급하는 프로판 가스값도 kg당 1,095원으로 92원(9.2%)이 인상됐다.

여기에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일부 제품 값을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일부터 커피와 차류 등 15종의 가격을 300원씩 올렸다고 3일 밝혔다. 톨사이즈를 기준으로 '카페 아메리카노'는 3천300원에서 3천600원으로, '카페라떼'는 3천800원에서 4천100원으로, '카라멜마끼아또'는 4천800원에서 5천1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기습 인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부 김정애씨(43·광주시 남구 진월동)는 "지난해에도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대출 금리와 가스 가격이 급등해 올해 물가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 경제 '비상' 기원합니다

해를 맞는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송기진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주 금성산 정상에서 경인년 해맞이 행사를 갖고 새 〈광주은행 제공〉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내린다

1분기 중 대형마트 수준 1.6~1.9%로

34만곳에 이르는 재래시장 점포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들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카드사들이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분기 중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1천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카드 가맹점 8만6천개에 대한 수수료율이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낮아진다. 다만, 재래시장 안에 있는 무도장과 귀금속점 등 유흥·사치업종과 법인 또는 대형 점포는 인하 혜택을 못 받는다.

또 연간 매출액 9천600만원 미만인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인하된다. 이중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65만 가맹점은 2007년 8월 수수료율이 2.0~2.3%로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점포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9천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25만개 등 33만6천곳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재래시장 점포와 중소 가맹점이 올해 수수료 부담을 약 1천250억원 덜 것으로 추정됐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까지 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드 수수료나 대금입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6월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한해 소비자물가

광주 2.5%·전남 2.8%↑

2009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각각 2.5%, 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09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석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 2008년에 비해 물가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농축수산물 및 채소류, 각종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공공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광주의 경우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5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는 전년대비 1.6%, 채소류, 과실류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7.4% 각각 올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산업·타이어 CP상환 중단

투자자 피해 불가피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상환이 중단됐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금융기관 제외), 해외투자자,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면 우선 부도 처리한 후 투자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 등 상거래를 동반한 CP(진성 CP)는 만기가 도래하면 빚을 갚겠지만, 금호측이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한 CP(회전용 CP)는 만기가 돌아와도 당장 빚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지원한 자금이 CP나 회사채 상환자금으로 쓰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작년 말 만기도래한 정기 어음은 결제했으나 외상매출채권은 아직 결제하지 못해 채권단과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CP는 총 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금호산업의 CP 발행 잔액은 6천억, 금호타이어는 5천억원 정도다.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잔량은 2조9천억원 규모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 산은-칸서스PEF에 789억 출자

금호석유화학은 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산업은행(KDB)-칸서스자산 사모투자펀드(PEF)에 488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구랍 31일 공시했다. 또 733억원 상당의 금호생명 주식 1천465만1천15주를 산업은행 및 칸서스자산운용에 처분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시를 통해 KDB-칸서스자산 PEF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301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452억원 규모의 금호생명 주식 903만7천627주를 처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韓銀 창립 60돌 새 CI 제정

한국은행은 대외 이미지와 추구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CI를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만든 CI 가운데 하늘색 태극 행표(行標·Symbol Mark)는 한은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태극의 면이 셋으로 나눠져 서로 맞물린 모습을 표현해 3개 경제주체(국가, 기업, 국민)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를 상징한다. 대표색으로 정한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은 청렴하면서도 전문적인 한은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